당서초등학교 2학년 5반 김도현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 날씨 : 흐림

제목 : 화페박물관

서울 화페박물관에 갔다왔다. 참재미있었다.
그곳에는 세계 여러나라의 돈이 있었다 (전부 다있는
것은 아님) 그중에서는 여러나라가 같이 쓰는 돈도
있고, (유로등) 올림픽 이나 세계 축제때 나오는
기념주화가 있었다. 그 외에도 박물관의 중앙에
1원, 5원, 10원, 50원, 100원, 500원이 널려 있는
돈통이 있었다. 그 안에 도서관( )?. 같은데도 있었다.
그리고 예술관( )?. 같은데도 있고, 오백원을 넣어서
자기 얼굴이 들어간 가짜 만원을 만들어주는 기계가
있었다. 학교에서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세계의 돈도
보고, 주화도 봤으니 숭업시간에 공부를 더 잘할것 같다.